

애견가이드 북

목차

Chapter 1. 분양 받은 후 30일 가이드

Chapter 2. 애견가이드 북 (건강한 애견 기르기를 위한 필수 학습서)

1. 개의 성장

2. 개의 사생활

- 암개의 성
- 수개의 성
- 교배의 적기
- 중성화 수술

3. 임신과 분만

- 임신
- 임신 중 개 돌보기

4. 개의 심리적 특성

- 개의 심리와 행동
- 카밍시그널

5. 개의 훈련

- 개의 습성
- 개 훈련의 필요성

6. 개의 관리

Chapter 1.

분양 받은 후 30일 관리 가이드

분양을 축하합니다.

분양을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이 된 강아지를 위해 30일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애견가이드북을 항상 가까이 두고 차모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받은 분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른 곳을 가지 마시고 가능한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가 차멀미를 할 수 있으므로 차 안은 시원하게 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양 받은 첫 날 꼭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까요?

분양 1일 강아지 쉬게 하기

- 집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과 충분한 휴식 필요
- 만지지 말고 편하게 쉬게 한다.
- 사료는 강아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약 4시간 후) 금지!
- 첫 사료 먹이기 : 첫 사료 먹일 때는 지정된 사료 외 절대 먹이지 않는다. 소화기 계통이 약한 강아지는 분양 1개월은 지정된 음식 외 절대 먹이면 안된다. 만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 잘못된 몇 번의 식사도 강아지는 위험에 질 수 있다. (장염 등 발생 위험) 금지음식 : 사람음식, 애견치즈, 간식, 우유, 오징어 등)

분양 2일 강아지 관찰하기

- 분양 첫날 휴식을 취하는 강아지 관찰하기
- 집안 중 강아지가 편히 지낼 장소가 보일 것이다. 그 곳에 개집을 마련해 주

고 폭신한 요 또는 개 전용 방석을 깔아 준다. 반드시 지붕있는 케이지를 마련해 준다.

- 주의!
 일주일간 목욕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
 분양당시 강아지 몸에는 오줌, 변, 사료 등의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목욕을 시키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아플 수 있다.

- 건강 체크리스트 만들기 : 식욕, 기침, 구토, 변의 상태는 매일 체크하자.

체크리스트	관찰 포인트
식욕	사료를 먹지 않는다. 기운이 없다.
기침	가시 걸린 소리 (-켁, -컹, -컹, -헉) 사람과의 기침소리가 다르고 크지 않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구토	구토는 건강의 적신호! 반드시 체크하자
변의상태	적당히 단단하고 휴지로 집었을 때 뭉개지지 않는 상태가 건 강한 변. 그 외 그림1의 변의 생태를 참고하여 체크하자.

그림1. 변의 구분

분양 3일 구충제 먹이기

구충제를 먹인다.

알약 한 알을 손가락으로 목 깊숙이 넣고, 입을 잡는다.

약이 목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목을 잘 쓰다듬어 준다. (그림2. 참조)

그림2. 약 먹이는 방법

분양 4일 ~ 6일 방심하지 말자!

3일 구충제까지 먹고 나면 강아지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견주는 방심하기 쉽다. 이 때 함부로 만지거나 강아지를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기르게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7일 원충제를 먹인다.

분양 7일이 되면 원충제를 꼭 먹인다. 그림 2를 참조하자.

분양 14일 (2주차)

- 강아지에게 잦은 목욕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목욕은 천천히 시키는 것이 좋으며, 꼭 목욕이 필요하다면 분양받은 2주째 후부터 권한다.
- 목욕시킬 때는 전용 샴푸를 사용하여 따뜻한 온수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3~5분 이내 신속하게 끝낸다. 목욕 후 드라이어로 속 털까지 말려준다. 가을, 겨울에는 하루 정도 히터나 난로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준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 이 시기에는 목욕하는 것 보다 강아지 몸에 냄새가 심할 때는 물티슈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향수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양 15일 종합백신 3차 접종하기

- 종합백신(DHPPL) 3차 접종 + 주충제를 먹인다.
- 주사 전 유의 사항

기침을 한다	강아지의 상태를 잘 체크하자!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절대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설사를 한다	의문점이 발생 시 언제나 상담하자 *가까운 수위사와 상담하세요

분양 3주

- 분양 후 3주째가 되면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생각에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절대 분양 받은 강아지는 30일간 외출금지!!!
- 2개월령의 강아지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잠을 잔다.
- 강아지 건강 상태는 매일 체크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체크포인트 : 식욕, 기침, 변, 구토 등

분양 4주 (분양 받은 후 첫 30일 되는 날)

- 분양 받은 후 첫 30일이 되는 마지막 4주차
- 아마 기다리고 기다렸던 외출일 수 있지만 첫 외출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외출을 계획한다.

강아지 첫 외출 주의사항!

Chapter 2.

1. 개의 성장

개의 성장 중 생후 4주부터 16주까지는 사회성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빠르다. 강아지가 사람과의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등 습관과 성격의 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습관화된 행동은 쉽게 고치기 힘들다.

개월수	상태	관리	예방
출생~2주	눈을 뜨지 못하고 후각으로 모건의 유두를 찾는 시기로 하루 90%를 잠. 1주 후 체중 2배가 됨. 주변 온도 변화에 약함. 2주경부터 꼬리 흔들기 시작	견사의 온도 2주까지 25°C 유지 모건에게 흡수력이 잘되는 고영양의 먹이를 준다.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면 사교적인 개로 성장하는데 도움	견사와 주변소독
3주~4주	15일 전후에 눈을 뜸. 젓니가 나기 시작함. 걷기 시작, 스스로 배변함	견사 온도를 4주까지 20°C 유지 강아지 눈 보호를 위한 조도를 낮춘다.	구 충제 투여
4주~5주	먹고 자는 것을 20시간 이상 반복함	강아지의 발톱이 날카로우면 어미의 유방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끝부분을 잘 깎아준다.	
5주~2개월	동작이 활발해 지고 강아지끼리 장난을 친다. 28개의 젓니가 모두 나며 젓을 떼고 몸의 균	고영양의 사료를 하루 3회 공급. 육류 먹이를 점차 늘려 공급	4주경-파보백신 6주경-구충제

	형이 잡힌다. 모체 이행 항체의 부족 으로 병균에 노출된다.	면역력이 없으므로 외부 인이나 다른 개들과의 접 촉을 막는다. 장난감을 주어 이빨이 다 치지 않게 한다.	7 주 경 -DHPPL 1차 8주경-구 충제
3개월~5개 월	어미로부터 독립이 가능 한 시기. 판매나 분양할 수 있다.	영양을 고루 섭취시키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야 한다. 기초훈련과 함께 배변 길 들이기를 한다.	10 주 경 -DHPPL 2차 12주경- 구충제 12 주 경 -DHPPL 3차 15주경- 광견병
6개월~8개 월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 한다.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털의 증가가 부진해 털 이 없어 보인다.	경비견이나 군견인 경우 특수훈련을 받을 수 있다.	
9개월~1년	성장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로 균형이 잡힌다. 암컷은 첫 발정기를 경 험한다.	일광욕을 자주 시켜주고 균형잡힌 먹이 공급을 해 야 한다. 첫 발정기때에는 교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DHPPL 접종-연1 회 접종하며 암개는 교배 2주 전에 접 종

1년 이상	성견이 된다.	성인병예방을 위해 꾸준 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을 해야한다	광견병백 신 연1회 접 종
-------	---------	---------------------------------------	-------------------------

개의 나이와 사람의 나이 비교

알면 유용한 Tip

강아지	20일	40일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10년	15년
사람	1세	2세	3세	5세	10세	15세	18세	25세	31세	63세	79세

이 시기에 있으면 유용한 애견 용품

- 발톱정리 셋트
- 치아보호를 위한 장난감
- 우리 애견 첫 사료

2. 개의 사생활

암개의 성

암개의 첫 발정은 생후 9~12개월 전후로 소형견이 대형견에 비해 조금 조속하
다. 가능한 첫 발정 때는 교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모체의 완전 성숙 후 교배는
튼튼한 강아지 생산과 강아지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의 건강에도 좋다.
발정주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으로 연 2회. 나이와 먹이에 따라 발정 주기는
늘어 남. 암컷은 보통 5세 이후부터 번식력이 감소하고 8세 이후 번식력을 상실
한다.

주의사항!

모견이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 강아지까지 감염되므로 교배 전 광범위 구충제
를 먹여 구충 후 교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개의 성

수개의 발정주기는 따로 없다. 암캐 발정 시 냄새에 자극하며 언제나 교미할 수 있다. 수개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성견이 된다.

교배의 적기 : 발정 시작 후 10~14일

교배 시기를 알 수 있는 주요 증상은 자궁에서 분비되는 붉은 분비물이 점차 옅은 분홍색에서 소량의 무색투명한 액체로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교배적기다. 난자는 배란 후 4~5일 동안 자궁 내에서 수정 능력을 유지하므로 1차 교미 후 2~3일 후 한 번 더 교미를 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강아지 수에도 도움이 된다.

중성화 수술

수개는 성견이 되면 여기저기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한다. 집안에서도 아무 데나 영역 표시를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도전적, 공격적 성향이 강해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번식을 시키지 않을 개라면 사춘기 전에 중성화 수술(불임수술)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호르몬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생식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중성화 수술은 청소년 시기나 성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전 4~6개월령 사이에 한다. 수술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중성화수술을 시키면 이미 습성이 몸에 배어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춘기 전에 시킨다.

3. 임신과 분만

임신

임신기간은 약 63일(9주)로 59일~65일 사이다. 임신기간의 차이는 암캐의 체질이나 태아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강아지가 많을수록 빨리 분만 할 수 있다.

임신 중 강아지 돌보기

① 임신 중 식사

임신 기간 중에 육류나 치즈, 우유, 계란 등과 같이 고영양식의 소화가 잘되는 식사를 준다.

임신 1개월 이상이 되면 태아가 모건의 위를 압박하므로 조금씩 자주 먹인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당한 채소도 함께 먹인다.

② 임신 중 운동

임신기간 중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킨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교배 후 약 3주간은 아직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평상 시 보다 가벼운 운동을 시켜야 한다.

임신 한 달 후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높은 곳을 뛰어 오르내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목욕

교배 후 약 3주 동안은 목욕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임신 3주가 지난 후에는 따뜻한 방에서 온수로 목욕을 시키는데 개를 직접 욕조에 담그지 말고 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목욕을 시키고 배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욕 후 헤어드라이어로 피모를 말려주는데 피부까지 충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이나 조산의 발생원인

갑자기 심하게 놀랐을 때
 질병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임신 중에 구충제나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복부에 심한 충격을 가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임신여부 확인

교배 후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초기에는 더욱 어렵다.
 별다른 이유없이 체중이 크게 늘어나면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 교배 후 35일~40일 경이 지나면 배가 점차 불러오고 체중이 증가한다.

임신 일수	몸의 상태	음부의 상태
임신 직후		발정의 절정기 보다는 약간 작고 평상 시 보다는 약간 크고 부드러운 상태
7일~14일	유두가 핑크색으로 변함. 유선에 응어리가 생김	유백색의 점액성 분비물이 소량 있음
30일	유선이 커지기 시작	
35일~40일	조금씩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 옴	
45일	배가 부풀어 오름. 체중 증가가 두드러짐	
50일	배에 손을 대면 태동을 느낄 수 있음. 유두 주위의 털이 빠져서 없어지고 유두를 압박하여 짜보면 반투명색의 젖이 나옴	

분만의 준비

분만 하루에서 12시간 전에 체온이 37.5°C 이하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므로, 미리 체온계를 준비하여 매일 2회 이상 체크하는 것이 좋다. 분만시간이 다가오면 밥을 먹지 않고 자리를 발로 긁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한다.

- ① 분만 장소는 어미가 익숙하고 조용한 장소가 좋다.
- ② 장모종은 젖 주변과 외음부에 털이 많을 때는 미리 잘라주는 것이 좋다.
- ③ 깨끗한 실, 가위, 소독약과 마른 수건을 여러 장 준비한다.
- ④ 분만 시 소변 패드나 모포를 깔아주고 분만이 완전히 끝난 후 오물을 치워 깨끗하게 한다.

분만

- ① 진통이 시작되면 복벽이 수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점점 진통 간격이 줄어들며 호흡이 거칠어지고 귀를 당기며 떨기도 하는데, 새끼가 산도로 내려오면 힘을 주며 뒷다리를 뺏거나 대변을 누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 ④ 진통이 시작되고 첫 번째 강아지가 태어나면 약 30~60분 간격으로 다음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새끼는 보통 양막에 싸인 채 나오며, 정상적인 경우 어미가 새끼를 싸고 있는 막을 벗겨내고 새끼를 핏아 준다. 만약 어미가 핏아 주지 않으면, 새끼의 코를 수건으로 닦아 양수를 제거한 뒤, 마른 수건으로 전신을 닦으며 마사지해 준다.
- ⑤ 새끼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다시 코를 입으로 힘껏 빨아 양수를 제거하고 숨을 쉴 때까지 인공호흡과 마사지를 지속한다. 새끼가 킁킁거리며 울기 시작하면, 마사지를 멈춰도 된다.
- ⑥ 겨울철에는 드라이어를 이용해 새끼의 체온을 덥혀 주는 것이 좋다.(화상 주의)
- ⑦ 정상적인 경우 어미가 탯줄을 스스로 끊으나, 간혹 너무 짧게 끊어 새끼가

감염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잘라주는 것이 좋다.

- 실로 배꼽 위 1cm 부위를 단단하게 묶은 뒤, 묶은 부위에서 5mm 위를 소독한 가위로 자른다.(남은 탯줄은 2-3일 후 저절로 떨어진다)

- 잘린 단면을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⑧ 첫 새끼를 조용히 아래의 가장 큰 유선(뒤에서 첫째, 둘째 유선이 젖이 제일 잘 나눔)에 대주어 젖을 빨게 하고, 다음 분만을 기다린다.

⑨ 태아 분만 후 약 15분정도가 지나면 가벼운 진통이 일어나며 태반(질은 흑녹색)이 배출되는데, 분만 당시 태아랑 같이 붙어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어미가 태반을 먹지 않도록 치워 주는 것이 좋다.(구토, 설사 유발)

난산

*가까운 수위사와 상담하세요

진통을 시작한지 12시간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6시간 이상 경과되거나, 첫 강아지가 나오고 다음 강아지가 나오기까지의 간격이 3시간을 넘으면 난산을 의심한다.

강아지의 꼬리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강아지가 산도에 오래 걸려 있을 경우 어미의 자궁수축에 맞춰 강아지의 몸통견인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꼬리를 잡아 당겨서는 안 된다.

분만 후 관리

●어미 견 관리

-어미는 출산의 기력 소모로 2~3일간은 잘 먹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소량의 사료를 불러주거나 쌀죽을 끓여준다.

-소형견이 다산을 한 경우 젖으로 소모되는 칼슘이 많아 저칼슘혈증(증상 : 고열, 빈 호흡, 사지 강직, 경련)에 걸리 수 있으므로 수위사의 처방에 따라 칼슘보충제를 먹이는 것을 권장.

-분만 후 열은 핏빛의 끈적끈적한 질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태반이 남아있다 녹아 나오는 것으로 한 달 가까이 지속될 수 있다.

●신생 견 관리

-체온 유지를 위해 어미에게 붙여둔다. (생후 2주일이 될 때까지 스스로 체온 유지를 못한다) 반드시 초유를 먹인다.

*초유는 분만 후 1~2일 동안 나오는 젖으로 면역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어미젖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시중 판매되는 초유 대용유를 먹인다.

-어미젖은 출생 후 2~3시간마다 꼭 먹여야 강아지가 살 수 있다.

-생후 한 달 경에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교체하여 구충제를 투여한다. 첫 예방접종은 6주 이후에 실시한다. 너무 일찍 접종하면 모체 이행항체에 의해 접종 효과가 반감된다.

4. 개의 심리적 특성

개의 심리와 행동

개의 성격이나 행동은 유전적 요인 즉, 혈통에 의해 상당 부분이 결정되지만, 강아지 때부터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개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개와 소통을 한다면 좋은 성격의 개로 키울 수 있다.

① 개는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풍부하다. 개는 감정 상태를 솔직하고 직접 나타낸다. 개의 인지 능력과 문제해결력은 2살 아이 정도다.

② 개는 사람의 태도나 목소리의 종류(세기, 음조)로 말의 의미를 판단한다.

개가 이해하는 것은 말 자체의 의미보다 말에 담긴 사람의 감정이다. 즉, 그 말이 애정이 담긴 말인지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여 반응한다.

③ 개는 사람이 쓰는 20~100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듣는다.

사람과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수록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게 된다.

④ 개가 짖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개는 다른 소리에 자극을 받아 짖거나, 주인을 만나서 기쁠 때, 배고플 때, 주인과 헤어지기 싫을 때 등 짖는다.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때리거나, 자극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인	대처
주인의 관심 유도	짖지 않고 잠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조용히 다가오면 놀아 준다.
야외 활동 유도(산책)	일정한 야외활동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짖을 때는 무시했다가 조용히 나간다.
심심하고 무료해서	어느 정도 짖다가 그친다. 산책, 운동, 같이 놀아 주거나 장난감 제공 등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 개는 행동과 몸짓으로 마음을 전달한다.

뛰어오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로 기쁨의 표현이다. 만약 개의 행동을 바로 잡고 싶다면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진정될 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꼬리

- 허리와 함께 좌우로 크게 흔들 : 기쁠 때, 반가울 때
- 조금만 좌우로 흔들 : 흥분, 경계
- 꼬리를 바짝 세움 : 위협
- 무서울 때 : 엉덩이를 감추듯 꼬리를 둥글게 감아 다리 사이로 넣는다.

몸의 위치

- 머리를 낮추고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절하는 자세 : 복종, 놀아달라는 애교
- 배를 완전히 드러내고 눕기 : 완전 복종자세, 놀아달라는 요청

주인 얼굴 특히 입가를 핥는 것은 어미한테 하는 응석과 애정표현의 연장

⑥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이 개의 인사법이다.

개의 항문낭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냄새가 상대를 식별하는 표식이다.

- 상대 개에게 당당히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는 개가 자신 있는 개다.
- 자신이 없는 경우 꼬리를 내려 항문을 감추거나 꿈무늬 빼고 도망간다.
- 개 주인은 최대한 방해하지 말고 개들끼리 탐색하게 내버려 둔다.

⑦ 어린 강아지의 희노(기쁘고 흥분해서 오줌을 지리는 행위)

- 주인에게 복종
- 아직 보호가 필요한 강아지라는 마음의 표현
- 성장하면서 요도 괄약근이 발달하고 개 스스로 자신감이 붙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 갓 난 강아지 때 어미가 배설 촉진을 위해 요도를 훑아주는 습성에서 생긴 것이다.
- 성견이라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오줌을 지린다. (스트레스, 외로움, 자신감 결여 등)

⑧ 사람과 개의 인사

- 개 이름을 부르면서 주먹을 개의 코끝에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한다.
- 이 때 정면으로 가깝게 다가서지 말고 옆에서 수평적 위치에 있고 눈도 맞추지 않는다.
- 개가 충분히 냄새를 맡은 후에 천천히 주먹을 펴서 턱, 목 주위, 미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카밍시그널(calming signal)

개들 간의 언어로 상대를 진정시키는 행동 신호다. 상대와 자신을 진정시키고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불안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하며, 자신 외의 개들 또는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한다.

① 얼굴 돌림 : 다른 개나 사람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정면에서 직선으로 다가오는 경우. 정면으로 시선을 받는 것에 위협을 느낀 개의 불안감 표현(나는 적

대감이 없다는 의사표시)

② 바닥이나 땅의 냄새를 맡음 (딴짓) : 다른 개나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불안을 느꼈을 때, 주인이 정면에서 강한 어조로 호령했을 때, 상대에게 적의가 없음을 나타냄

③ 젖은 몸을 털 때처럼 몸을 흔들 :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다른 개나 사람에 대하여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스스로 풀려는 행위(상대 개가 자신을 무서워할 경우 적의가 없음을 표시)

④ 자신의 코를 훃음 : 사람이 갑자기 끌어안거나, 수의사가 몸을 만지거나 주인이 거칠게 말할 때, 먼 곳에서 접근해 오는 낯선 개를 발견했을 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진정시키려는 행동

⑤ 멈추거나 천천히 하는 동작 : 시야에 다른 개를 발견했을 때, 주인이 큰소리를 지를 때,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행동

⑥ 머리를 낮게 숙여 절하는듯한 자세 : 신경질적인 개를 만나거나 소·말 등 자신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만났을 때,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행동

⑦ 앉음 : 다른 개가 갑자기 다가올 때, 주인에게 큰소리로 야단맞을 때, 상대에게 적의가 없음을 표시, 주인에게 진정하시라는 표현

⑧ 두 마리의 개가 마주치지 않고 서로 반대 곡선을 그리면서 스쳐 지나감, 상대에게 적의가 없다는 뜻

⑨ 하품 : 가족이 싸울 때, 시끄럽게 개를 야단치는 경우, 감정이 격한 상대나 불안을 느끼는 상대를 진정시키는 신호

⑩ 두 사람 사이에 끼어둠 : 긴장 관계가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많은 사람이 소파에 끼어 앉아 있거나, 몸을 밀착시켜 춤을 추고 있거나, 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중재자로 행동하여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뜻

⑪ 몸을 돌림 : 다른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주인에게 야단맞을 때, 상대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뜻

⑫ 옆드림 : 서열이 높은 개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낮은 서열의 개를 진정시킬 때, 강아지들이 장난이 심해서 계속 흥분될 때, 서열이 낮은 개를 안심시킴, 강아지들을 진정시킴.

5. 개의 훈련

개의 습성

개는 오랫동안 길들여도 야생 늑대의 습성을 갖고 있다. 먹이 사냥을 위한 단단한 골격과 민첩성,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본능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물을 경계하는 습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사람들이 필요로 개량을 하고 훈련된 특수 목적견, 사냥개와 목양견 등은 잘 짓거나, 꾸준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견주는 이런 개의 습성을 잘 이해해서 자기에게 맞는 개를 선택할 때, 훈련을 시킬 때 참고하기 바란다.

개 훈련의 필요성

개 훈련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으로 독특한 행동을 하는 개를 잘 이해하고 개가 인간사회와 조화롭게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개를 훈련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가 아니라 주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의 행동을 잘 이해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개를 가르칠 수 있다. 기본적인 훈련은 12주령 이상이면 가능하며 전문적인 훈련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1). 훈련의 6가지 원리

① 지시어(명령어) 사용

② 지시어의 일관성

- 하나의 행동에는 하나의 지시어 사용

③ 훈련의 일관성

-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

④ 상황의 일관성

-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주인의 기분대로 혼내면 안 된다.

⑤ 구성원 행동의 일관성

- 가족 모두가 같이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⑥ 사회성 훈련

- 낯선 사람, 장소, 다른 강아지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훈련을 시키기 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지 컨디션은 좋은지 건강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류	사용법
줄(lead)	산책 또는 훈련 시 필수품으로 잡기 편하고 가볍고 튼튼한 것이 좋다. 1~1.5m가 적당하다.
초크체인(choke chain)	줄임줄이라고 하는 초크체인은 쇠사슬 모양을 하고 있다. 당기면 조여지고 놓으면 풀어지는 특징을 가진 줄로 훈련 시 효과적이다. 반드시 초크체인을 채울 때는 체인이 당기면 조이고 놓으면 풀어지는 지를 꼭 확인해서 사용한다.
훈련용 긴 줄	10m 이상의 긴 줄은 이리와, 방향전환 등 줄을 매지 않았을 때 움직임 통제 훈련용으로 사용.
공	개의 관심, 집중을 위한 가져와 훈련용.
칭찬용 먹이	개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한번에 바로 삼길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한다.

(2) 개의 성격 알기

지금 우리 개는 어떤 성격인가? 먹이에 집착을 해서 먹을 때나 혹은 밥그릇만 만져도 으르렁 거리는지. 목줄을 채우면 버티지는 않는지, 소극적인 성격으로 자신감이 없는 개인지,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며 집중력이 떨어지며 그 관심이 오래가지 않는지 반대로 집중력이 너무 좋아 한 가지에 집착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별 성격으로 분류한 견종

성격	증상	견종
소심한 성격		
고집이센 성격		
산만한 개		
집중력이 좋은 똑똑한 개		

(3) 연령별로 시작하는 훈련

분양받은 후(생후8주)부터 4개월까지의 기본 훈련

배변훈련

강아지의 배변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음식이나 물을 먹고 난 후 대부분 이므로 이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① 지정된 배변 장소를 알려주기

- 먹고, 놀고, 잠자는 장소와 구분하여 배변 위치를 정해주어야 하며, 배변훈련이 될 때까지 장소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② 배변 훈련방법

- 소변 냄새를 묻힌 뒤 배변 장소에 묻힌다.
- 배변 장소에 배변 시 칭찬을 아까지 않으며 다른 곳에 배변 시 완강하게 '안돼'라고 인식시켜야 한다.

- 배변 장소가 아닌 곳에 배변했더라도 시간이 얼마간 지났다면 혼을 내 도 소용이 없으니 실수하더라도 심하게 혼내거나 때리는 행위는 강아 지에게 배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③ 식사시간 정하기

- 음식과 물을 규칙적으로 공급하면 배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불규칙적이거나 많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배변훈련에 도움이 안 된다.

- ④ 배변 욕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 바닥 냄새를 맡거나, 웅크리고 앉으려 하거나,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행동
 - 이럴 때, 배변 장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⑤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를 배변장소에 데리고 가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강아지는 식사 후 배변하는 경우가 많으니 훈련 시 참고한다.

- ※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
- ※ 강아지가 실수 시에 큰소리를 치거나 손이나 신문지 만 것 등으로 때리지 말아야 한다.
- ※ 간혹 강아지가 주인에게로 다가와서 태연히 배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복종표시의 배뇨행위”이므로 야단치면 안 된다. ⇒ 더욱 자상하게 훈련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워 줘야 한다.

배변훈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예절이다.

- ① 강아지를 주인의 침대 위에서 재워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같이 침대에서 자면 강아지는 자신의 서열을 착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인 허락 없이 침대에 올라가게 하지 말 것)
- ② 개밥은 반드시 가족의 식사가 끝난 후에 줘야 한다.
 - 식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개가 계속 보채도 모른 체한다.
 - 만약 식탁 위로 앞발을 걸치면 바로 ‘안돼’라고 말한다.

(4) 기본훈련

1) 훈련의 원리

- 강아지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 행동에 맞는 명령을 해야 함

☆2) 성공 포인트

- ① 하나의 행동에는 한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것
- ② 명령은 1회로 끝낼 것 (저음으로 단호하고 짧게)
- ③ 동작의 시작과 끝맺음을 표현할 것
 - 명령→동작→해당 명령의 수행에 대한 칭찬→긴장해소로 이루게 하여 한 명령이 처음과 마무리를 분명하게 개에게 알려줌
- ④ 포상을 잘 이용할 것 - 개가 좋아하는 간식, 쓰다듬기, 칭찬을 분명하게 하여 개의 학습의욕을 자극함
- ⑤ 칭찬할 때, 야단칠 때는 타이밍이 중요 - 칭찬과 야단 모두 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
- ⑥ 식사 전에 훈련을 시킬 것 - 배가 고플 때 간식의 기대치가 가장 높으므로 훈련에 효과적임
- ⑦ 훈련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자주 시키지 말 것
 - 처음에는 1회 2~3분, 하루에 4~5회가 적당함
 - 그 이상 시에는 집중력 저하 및 훈련을 괴로운 일로 여기게 됨

5. 약 먹이기

- ① 개를 앉게 한 다음 개 옆에 웅크리고 같이 앉는다. 몸을 쓰다듬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개를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다.
- ② 개가 양전해지면 코끝을 잡고 입을 벌리고 약을 손가락으로 집어 가능한 입속 깊숙이 넣는다.
- ③ 혀 위에 약을 놓았으면 바로 입을 양손으로 압박하여 다물도록 누르며 완전히 약을 삼킬 때까지 입을 잡은 채 기다린다.
- ④ 개가 약을 완전히 삼키면 혀를 입 밖으로 조금 내미는데 그러면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칭찬해준다.

(5) 외출훈련

- ① 산책할 땐 반드시 개 줄을 매는 것이 원칙이다. (중형견 이상의 개는 다른 개와 싸우거나 어린아이들을 물 사고의 위험성 있음)
- ② 산책 시 개가 앞서 가면서 개 줄을 끌고 주인은 질질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 통제할 수 없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는 안 된다.
- ③ 산책 중에 배변이나 배뇨를 하여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소위 “센터 표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복종심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④ 강아지와 주인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책할 때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리더 워크 훈련이 필요하다.

⇒ 리더 워크란?

- 주인이 개에게 개 줄을 채우고 함께 걷는 훈련
- 주인이 개 줄을 잡고 개를 자신의 좌측 옆에 붙인 상태로 걷는 것을 뜻하며 복종훈련의 기본
 - 리더 워크의 기본 원칙은 개와 시선을 절대로 맞추지 말고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이며 말을 해서도 안 된다.
 - 개가 주인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고 결국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개가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 훈련은 한 사람이 시키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6. 개의 관리

(1) 식사관리

- 양질의 강아지 전용 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한다.
- 개는 매일 똑같은 사료를 주어도 싫증을 내지 않는다.

- 밥은 꼭 정해진 시간에, 정량만, 사료량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
- 2일 이상 강아지가 굶게 되면 위험하다.
- 항상 신선한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담아준다.

주의사항

- ①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정해진 양을 전용 식기에 준다.
- ② 먹다 남긴 사료는 버리고 새로 급여한다.
- ③ 식사 중에는 과자나 과일 등 균것질거리를 주지 않는다.
 - 정해진 식사의 섭취를 방해할 수 있고 비만을 초래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 ④ 가족구성원이 식사 중에 개에게 음식물을 주면 안 된다.
 - 한 번 이렇게 길들면 식사 시 귀찮고 특히 손님이 왔을 때는 실례가 될 수 있다.
 -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규칙적인 식사를 거르게 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 너무 맵거나 지방이 과다 함유된 음식은 개의 소화기능을 악화시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한다.
 - 개의 염분 요구량은 사람보다 적다.
- ⑤사료 교체 시 새로운 사료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며 섞어 먹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료교체 시 설사를 할 수 있다.)

TIP! 먹이면 안 되는 음식

향신료, 소금, 식 소다, 뼈, 우유 및 유제품, 등푸른생선, 당분, 발효 빵, 햄, 소시지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아보카도, 과일, 카페인제품, 알코올, 달걀흰자, 오징어, 문어, 쥐포, 새우, 게, 조개, 돼지고기, 감귤류, 콩류, 과일씨, 견과류, 브로콜리, 아기 이유식, 양파, 마늘, 초콜릿, 포도, 토마토, 자일리톨, 마카다미아, 진달래, 만병초, 동물의 간

필요영양

단백질 25%, 지방 8%, 탄수화물 50%

개는 사람보다 단백질은 4배, 미네랄은 10배 이상을 필요로 한다.

사료 급여 횟수와 양

월령	1~2개월	3~4개월	5~10개월	11개월 이상	늙은 개
급여 횟수(일)	5~6회	4회	3회	2회	1회
급여량(일)	체중의 4%	체중의 3~4%	체중의 2~3%	체중의 2%	1~2%

표) 개의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 횟수

추천 사료

고급형: 프로폴랜-퍼피라지브리드 or 로약 캐닌-맥시 주니어 or 사이언스-퍼피 라지브리드
실속형: 대한사료-아지피아
실속형 사료 급여 시 3개월 이후부터 생식(오리, 닭)을 함께 급여한다.

급여방법

급여량	-사람 수저로 가득 퍼서 ()수저를 급여하는 것이 정량이다. -분양 후 15일 이내에는 사료량이 과할 경우 쉽게 장염에 걸린다. -분양 후 15일 이후부터는 사료량을 서서히 늘린다. (강아지의 발육속도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경이 바뀌면 변 상태가 묽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이 묽어질 경우 분양소에 문의한다.
급여형태	-분양받은 강아지는 건 사료를 먹인다. -생후 65일 이하일 경우 처음 5일간은 사료를 갈아서 먹인다. -건 사료를 잘 못먹을 경우 물에 10분간 불려서 준다.
급여시간	-생후 5개월까지 오8시, 오1시, 저7시 (하루 3회) -생후 5개월 이후 오전 8시, 저녁 7시 (하루 2회)

분양 후 1개월간 음식통제

어린 강아지는 소화기 계통이 약하므로 분양 후 1개월간은 지정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주면 안 된다. 잘못된 식사 몇 번으로 인해 강아지가 죽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사람 음식 일체, 애견 치즈나 간식, 우유, 과자, 오징어 등은 절대로 먹이면 안 된다.

-무심코 준 음식이 어린 강아지 장염을 유발하고 병들어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채소 사료 먹이기

채소 사료는 소화기능과 위장에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 써서 먹이도록 한다.

1. 종이컵에 채소 사료(1cm크기)를 3~4개를 넣어 뜨거운 물에 불린다.
2. 먹던 사료에 잘 섞여 먹인다.

대형견 필수식사법

-대형견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사료와 함께 생고기를 먹여야만 멋진 골격과 근육으로 발달한다.

-생식을 한 개와 하지 않은 개는 1년이 지난 후에 비교하면 덩치, 털의 윤기, 건강 등 모든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생후 2~3개월령에는 생소고기를 손가락 크기로 잘라 매일 1~2개 정도 먹인다.

-생후 3~4개월령부터는 오리나 닭고기를 뼈째 갈아주거나 통째 생식으로 조금씩 먹인다.

-오리, 닭 또는 닭 머리 등의 생고기를 양배추와 함께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면 좋다. 또한, '인'과 '칼슘 영양제', '유산균제'와 달걀, 치즈 등을 먹이면 튼튼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

주의 뼈가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 발라서 줘야한다.

(2) 청결관리

브러싱

목적

- ① 빠진 털을 제거함으로써 피부가 짓물러 먼지 등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 ② 피모가 얽히거나 뭉치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 피모를 청결하게 한다.
- ③ 외부기생충을 제거한다.
- ④ 피모의 안쪽까지 공기를 통하게 해 체온조절을 쉽게 한다.
- ⑤ 피부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모의 성장을 도와준다.
- ⑥ 마사지 효과로 피부나 근육의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피부병을 예방한다.
- ⑦ 개의 스트레스 해소

⑧ 주인과 개와 나누는 애정 교환

⑨ 개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 가능 : 통증, 탈모증(국소, 전신), 체온 등 감지

브러싱을 안 할 경우

① 얽히거나 뭉친 털로 인하여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피부가 무르고 가려워한다.

② 가려운 곳을 발로 긁어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다.

③ 비듬이 생기고 이, 벼룩, 모낭충에 감염되기 쉬우며 식욕을 저하한다.

[브러쉬의 종류와 용도]

(3) 목욕법

목욕횟수와 시기

- 개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보다 약하므로 사람의 샴푸를 사용하거나 너무 잦은 목욕은 피부의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병에 걸리기 쉽게 한다.
- 실내 사육 장모종의 경우 월 1~2회가 적당하다. (최대 월 3회 이내)
- 식후 3시간 이후에 목욕을 시켜야 구토를 예방할 수 있다.

목욕용품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목욕 용품 안내)

목욕 전 준비

- 단모종 : 즉시 목욕 가능
- 장모종 : 목욕 전에 먼저 브러싱하여 전신의 피모를 완전히 풀어 주고 빠진 털을 제거해야 한다.

(장모종 개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중요한 요령)

- 목욕 전에 피모에 얽히고 헝클어진 털을 잘 풀어놓지 않고 목욕을 시키면 심하게 얽혀 버린다.

① 솜으로 귓구멍을 막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단, 숙달되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귀마개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커다란 대야에 물을 충분히 넣고, 견체를 살며시 넣어 전신의 피모를 잘 적셔서 견체를 따뜻하게 해 준다. (샤워기를 사용해도 됨)

③ 항문낭(항문의 4시와 8시 방향 위치)에 끈 오물을 짜내고 더운물로 씻어줌. 장기간 짜지 않고 내버려두면 항문 주위가 부풀어 올라서 염증(항문낭염)을 일으킨다. (목욕 전 짜줄 것- 월 1~2회 실시)

④ 사전에 다른 용기에 풀어놓은 샴푸를 컵 따위의 작은 용기로 떠서 견체의 등선을 따라 부어준다. (머리와 얼굴부위에는 붓지 말 것)

⑤ 먼저 사지와 몸체를 부드럽게 샴푸 하며, 피모를 휘젓듯이 문질러 씻는 것은 털을 얽히게 하는 원인이 된다.

머리와 얼굴은 마지막으로 몸체에 묻은 샴푸를 적당량 가져와 재빨리 샴푸한 후 씻어 낸다. 머리를 씻어 낼때에는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눈에 물이나 샴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몸체와 사지를 씻고 나서 전신을 잘 행구어 샴푸를 완전히 씻어 내야 한다.

⑦ 장모종에서는 피모를 손바닥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한 뒤 린스를 해준다.

⑧ 추운 계절에는 견체에 또 한 번 더운물을 끼얹고 전신을 따뜻하게 해준다.

⑨ 귀마개를 제거한다.

단모종

목욕 수건으로 잘 털어 물기를 닦아 낸 뒤 드라이어로 살갓까지 잘 말린다. 여름철에서는 잘 마르므로 일부러 드라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추운 계절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완전하게 말려 줘야 한다.

장모종

반드시 드라이어와 쿠션 브러시 또는 쇠 빗을 사용하여 털을 풀면서 말려줘야 한다. 이는 털이 잘 마르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 털이 건조할 때의 상태로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4) 귀의 손질

원래 귀는 건조한 상태로 귀지는 없어야 한다. 만약 귀지가 찬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 귀 진드기가 붙거나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개는 가려우므로 귀를 심하게 긁게 되어서 소중한 귀나 목의 털을 손상하거나 귀 주변의 피부를 찢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시로 귀를 검사하고 깨끗하게 손질해 주어야 한다.

귀지

귀지는 개에 따라서는 거의 차지 않는 것도 있고, 반대로 끈적끈적한 귀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후자는 유해하다.

건조한 약간의 귀지 밖에 쌓이지 않을 때에는 귀를 청소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쓸데없이 **솜 막대**로 **귓구멍을 함부로 자극하는 일은 좋지 않다.**

귀지가 자주 쌓이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청소를 하는 간격은 귀지에 따라 다르지만 귓볼이 안쪽 특히 귓구멍 주위가 붉어져서 귓볼에 가벼운 열감이 있는 상태까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귀의 손질 주기

- 2주에 1번(격주) 정도가 바람직하다.

귀 손질 용품은 이렇게 준비하세요.(용품안내)

귀의 청소 방법

- ① 장모종의 경우 우선 귓구멍 속에 난 털을 제거해 줄 것 : ear powder를 뿌리고 손가락 또는 **검자를** 이용하여 살살 뽑으면 아프지 않다.
- ② 탈지면을 감은 면봉으로 귀속에 찬 귀지를 제거한다. 이때, 귓속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 한다. (사람용 귀이개 사용 금지)
- ③ 귓구멍이 붉었거나 붉게 충혈되어 있을 때는 귀 세정액을 이용하여 잘 닦아준다.

귀 진드기

- 귓구멍에는 귀지에 달라붙는 귀 진드기가 종종 기생하는데 이것은 진주 비슷한 빛깔을 한 동그스름한 형태의 진드기이다.

- 귀 청소를 하고 나면 반드시 현미경 또는 확대경으로 귀지가 붙은 탈지면을 잘 살펴서 귀 진드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귀진드기가 발견되었을 때는 귀 진드기가 솜 막대기에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정성껏 청소를 해줘야 한다.

(5) 치아의 손질

개에도 이의 손질은 불가결한 것이다. 개가 쇠약해지는 주요인은 치아가 약해져서 밥을 잘 못 먹어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치아 손질은 귀찮은 작업이므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격일 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를 점검해 주어야 한다.

이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거나, 거즈 등을 손가락에 감고 닦아준다. 또 애견용 칫솔과 치약(사람용은 부적합함)을 이용하면 수월하다. 1세 이상이 되면 치석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치석이 크고 굳어지기 전에 핀셋 또는 치과용 치석 제거 용구로 완전히 제거해 준다. 거의 모든 동물병원에서 치과 진료가 가능하며 치과 전문 동물병원도 있어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다.

치아 손질 용품은 이렇게 준비하세요.(용품안내)

(6) 발톱의 손질

- 애완견은 체중도 가볍고 운동량도 적고, 또 주로 실내에서 사육되므로 굳은 땅을 밟는 기회가 적은 관계로 내버려두면 발톱이 길게 자라기 쉽다.
- 발톱이 너무 길면 걸음걸이가 안 좋아진다. 또, 뭔가 발톱에 걸려서 의외의 외상을 입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2주에 1번 정도의 점검과 한 달에 한 번 발톱을 깎아준다.

1) 발톱 깎는 법

① 발톱의 밑동 가까운 부분에는 혈관이 통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절단하면 상당한 출혈을 유발하며 아파서 발톱 깎기를 싫어하게 된다.

흰 발톱의 견종은 광선에 비쳐 보면 이 부분이 불그스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발톱을 가진 견종은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발톱을 잘라야 한다.

② 발톱 밑동의 혈관은 발톱이 자람에 따라 같이 뻗어 가지만 언제나 발톱을 짧게 깎으면 혈관도 후퇴함. 발톱이 길게 자란 개는 출혈하지 않을 정도만 발톱을 잘라서 점차로 짧게 만든다.

③ 발톱을 자른 뒤에는 절단한 곳을 줄로 갈아서 다듬어 줘야 한다.

④ 취침 전이라든가 목욕시킬 예정이 있을 때는 목욕 후가 발톱 깎기가 적당하다. 특히 목욕 후는 발톱이 부드러워져 있으므로 자르기 쉽고 개도 싫어하지 않는다.

2) 출혈했을 때의 치료법

① 발톱을 잘라서 출혈한 경우에는 출혈하고 있는 절단면에 지혈제를 뿌리고 강하게 눌러서 지혈될 때까지 압박해 줘야 한다.

* 지혈제는 애완견용 지혈제를 사용한다.

② 세균 감염을 위해서 출혈 후 개를 지면에 내려놓거나 목욕시키지 않는다.

애견을 위한 구급상자 준비해 주세요!

7. 개의 건강관리

(1) 개의 응급상황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식욕부진이 이어져 이틀을 굶을 때

설사를 하는데 며칠을 내버려 두어 심한 장염으로 악화되었을 때

감기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아 폐렴이나 흉역으로 이어졌을 때

아플 때 대처법

강아지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보이면 분양소에 전화 상담을 받아 즉각 식이요법과 주사,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설사 할 때

1. 사료를 중단한다.

2. 소고기 죽을 먹인다.

3. ID 사료를 먹인다.

설사하는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식단은 소고기 죽이다.

설사해서 죽을 먹이던 중 변 상태가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기본 7일은 소고기 죽을 계속 먹여야 한다.

죽을 하루 이틀 먹이다가 바로 사료로 바뀌서는 안 되며, 변이 나아진 경우에는 죽에 사료를 조금씩 섞어서 주면서 서서히 사료의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

절대로 밖에서 파는 죽을 먹이면 안 되고 죽을 쑤어 먹일 상황이 안 되면 동물병원에서 파는 처방 사료인 'ID 사료'를 먹여도 괜찮다.

사료를 안 먹는다고 우유나 고기 통조림, 간식, 사람음식을 먹이면 절대 안 된다.

TIP! 소고기 죽 만드는 방법

- ① 소고기와 양배추를 다져 넣고, 쌀과 물을 부어서 끓인다.
- ② 소금을 비롯한 양념이나 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③ 아기 이유식 만들 듯 죽을 끓이신 후 적당히 식혀서 먹인다.
- ④ 만약 소고기 죽을 먹지 않을 경우, 복어와 미역으로 육수를 내어 죽을 끓이면 강아지가 더 잘 먹는다.

(2) 개의 주요 전염병

광견병	
정의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발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서 광증과 정신장애 및 신경마비를 유발하며 폐사율이 매우 높고 거의 모든 정온동물에 감염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전염병이고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발생상황	광견병은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주의할 시기는 산과 들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드는 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이다.
감수성 동물	포유류와 조류 등 거의 모든 정온동물에 감염이 잘 되는 병인데, 포유류 중 가장 감수성이 가장 높은 동물은 여우, 코요테, 자칼, 늑대 등이다. 소, 스컹크, 너구리, 고양이, 토끼, 박쥐 등도 비교적 감수성이 높으며, 개, 양, 염소, 말 등은 중 정도의 감수성 동물이다. 박쥐는 감수성이 낮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하여 공수병이라고 부른다.
전염방법	광견병은 이 병에 걸린 동물에 물렸을 때 전염된다. 전염원은 남미의 경우 주로 흡혈박쥐, 북미에서는 여우와 스컹크 및 너

	구리, 유럽에서는 여우 등 야생동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조사 결과 너구리로 밝혀져 있다.
잠복기	광견병 바이러스는 신경 친화성이 있어 뇌를 향하여 오직 말초신경계의 신경조직을 따라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물린 부위에 따라 잠복기가 달라진다. 얼굴처럼 신경조직의 분포가 잘 되어 있으면서 뇌와 가까운 부위를 물렸을 경우에는 잠복기가 짧고 발끝처럼 뇌와 거리가 먼 부위를 물렸을 경우에는 잠복기가 길다. 개의 경우는 3~8주이고, 소의 경우는 3~4주이며, 사람의 경우는 30~90일이지만 긴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몇 년이 되기도 한다.
임상 증상	임상 증상의 발현은 그 진행에 따라 전구기, 흥분기, 및 마비기로 구분한다. 개의 경우 전구기에는 평소와 다르게 주인을 피하거나 불안해하며 어두운 곳에 움츠리고 숨어 있으며, 흥분기에는 발광하여 공격적이 되어 먼 거리를 배회하면서 닥치는 대로 물고 나무나 돌과 같은 이물질을 삼키며, 마비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인두와 아래턱이 마비되며 연하곤란을 나타내고 보행실조와 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폐사에 이른다. 소는 침을 과다하게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며 불안과 흥분을 보인 후 경련과 마비에 이어 폐사한다.
진단	*생체관찰 : 물은 동물이 살아 있으면 해당함. - 사람을 물은 개나 너구리 등이 살아있다면 10일간 격리 관찰 ⇒ 5일간 이상이 없으면 광견병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총 10일간 동물에 이상이 없으면 물린 사람에서는 광견병 감염 위험성이 전혀 없음
치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치료법이 없으며 발병 시에는 거의 100% 폐사함

예방	<p>* 백신접종 : 6개월 이상 된 개나 소에 1회 접종 후 매 1~2년마다 추가 접종</p> <p>① 개, 소 : 생독백신 사용, 출생 후 3~5개월령에 1차 접종 후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함</p> <p>② 고양이 : 반드시 사독백신 사용</p> <p>※ 야생동물 : 미끼백신 사용</p> <p>○ 물린 사람의 백신 접종 : 14회(매일) + 10일과 20일 후 각 1회 보강 접종</p>
-----------	---

개 디스토펙퍼(Canine distemper) D	
정의	개 디스토펙퍼 바이러스의 감염에 개를 비롯하여 여우, 늑대, 족제비, 오소리, 너구리를 비롯한 야생 육식동물에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또는 아급성의 열성 전염병이다. 호흡기와 소화기 증상 및 신경 증상이 특징이다. 일명 개 홍역 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4~5개월령의 강아지나 늙은 개에 많이 걸린다.
발생상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개에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는 등 백신 접종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이다.
감수성동물	애완동물인 개를 위시하여 개과에 속하는 야생동물인 늑대, 자칼, 코요테, 여우 등과 너구리와 야생동물인 너구리, 판다 등, 하이에나과에 속하는 하이에나, 족제비과에 속하는 족제비, 흰족제비, 오소리, 밍크, 담비 등이 감수성이 있다. <u>사람은 감수성이 없다.</u>
전염방법	전염경로는 병든가축의 분비물과 배설물 등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통해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배출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와 물에 의한 경구감염 및 신체

	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도 가능하다.
잠복기	잠복기는 3~6일(평균 4일)로서 거의 일정하다.
임상 증상	<p>임상 증상은 다양하나 대개 호흡기, 소화기, 눈과 피부 및 신경계 증상 등 4가지 유형의 증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p> <p>처음에는 열이 나며 맑은 콧물을 흘리다가 바로 점액 농성으로 바뀌며 기관지염과 폐렴 증세를 나타낸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고 고름 양의 분비물이 나오며 각막이 혼탁해지는데 심한 경우 각막궤양으로 발전한다.</p> <p>대개 초기에는 점액이 섞인 수양성 설사를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암적색의 냄새나는 혈액성 설사를 한다.</p> <p>간혹 신경증상으로 인해 입에 거품을 물며 간질성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피부 특히 하복부에 고름집이 생기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증상은 개에서는 드물지만, 오소리에서는 흔히 나타난다.</p>
진단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정밀진단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
치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일반적인 치료법은 없고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과 이차적인 세균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균)제의 투여 및 비타민 C의 투여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예방	<p>개 디스토펙퍼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약화하고 면역원성은 유지한 세포배양 순화생독백신을 접종하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시기이다.</p> <p>만약 개 디스토펙퍼 바이러스에 대해 높은 항체역가를 보유한 모견에서 태어난 자견은 생후 12주령까지 모체이행항체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백신접종을 하면 백신바</p>

	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고 항체에 의해 소실되어 버리므로 백신접종의 효과가 낮다. 그러므로 12주령 이후에 재접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스토퍼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항체역가가 매우 낮은 모견에서 태어난 자견은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이 12주령 되기 전에 이미 방어수준이하로 내려가므로 보다 빨리 접종해주어야 한다.
--	--

전염성 감기 (Para Influenza) P	
정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켈넬코프 및 전염성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며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이다.
감수성 동물	원숭이, 개, 쥐, 고양이 등에도 감염되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전염방법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임상 증상	눈 주위에 진물이 나며 거친 기침과 콧물이 나며 타 질병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방 및 치료	종합 백신(DHPPL)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회 보강하면 된다.

개 전염성간염 (Infectious Hepatitis) H	
정의	개 전염성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개의 전염병으로서 임상적으로 디스토퍼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며 간염이 특징이다.
감수성 동물	자연감염은 개, 여우, 늑대, 코요테 등 갯과 동물에서만 이루어진다.
전염방법	접촉 및 경구감염으로 감염된다. 감염된 개는 호흡기분비물, 침, 오줌,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설한다. 회복된 개일지라도 5~6주간 바이러스를 배출.
잠복기	약 2~6일이다.

임상 증상	1) 심급성형 : 아무런 전구증상 없이 강아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발열(39.4 - 41.1℃), 경련과 혼수상태를 보이다가 발병 후 3~4시간 후에 죽는 경우 2) 급성형 : 발열(41.1℃), 침울, 식욕결핍, 구토, 혈변, 잇몸의 점상출혈, 점막 창백, 황달 및 폐사 등이 나타남 3) 경증형 : 식욕감퇴, 의기소침, 청색 눈,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회복 4) 무증상형 : 인두염 또는 편도염 나타냄 5) 만성형 : 간의 만성염증과 간경화로 인하여 복수 및 간성뇌질환 유발
진단	백혈구감소증 및 림프구감소증
치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대증요법으로 수액 요법을 실시하며, 2차적인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균)제를 투여한다.
예방	생독백신 또는 사독백신 접종(5종 종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음)생후 6~8주령에 시작하여 16~18주령까지 2~3주 간격으로 3~4회 접종하고 매년 추가접종을 한다.

개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Pavo virus) P	
정의	자견과 성견에서 구토와 혈액이 섞인 심한 수양성 설사를 주증으로 하는 출혈성장염과 신생자견(2주 미만) 및 어린 자견(3~8주)의 급사를 유발하는 심근염을 일으키고, 폐사를 강아지 70%, 성견 30% 이상이다.
발생상황	1978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 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81년 처음 발생 확인된 후 계속하

	여 발생하고 있다.
감수성 동물	자연감염은 개, 너구리, 여우, 코요테, 및 늑대 등 갯과동 물에서만 발생
전염방법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감염된다. 감염된 개는 분변을 통해 3주간은 계속 바이러스를 배설하고 이후로는 상당 기간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설할 수 있다.
잠복기	약 5일
임상 증상	구토, 복통, 혈액 성분이 섞인 수양성 설사, 식욕절폐 등으로 인하여 개는 탈수와 함께 매우 쇠약하게 된다. 어릴수록 폐사율이 매우 높다. 혈액검사 시 심한 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난다. 신금염형의 경우 자견이 특별한 전구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요 증상은 심장형과 장염형으로 나뉜다. 심장형은 8주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에서 많이 나타나며 심근괴사 및 심장마비로 인하여 별다른 증상 없이 급격히 폐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장염형의 경우는 12주령의 강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구토 및 악취 나는 회색설사나 혈액성 설사를 하며 식욕이 없어지며 쇠약해진다. 강아지의 경우 탈수로 인하여 1~2일 안에 폐사될 확률이 높다.
진단	구토, 혈액성 설사, 복통 등 현저한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치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대증요법으로 수액 요법을 실시하며, 2차적인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균)제를 투여한다.
예방	초유를 잘 먹여야 하며,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에 따라 간섭 기간이 달라 접종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후 6~8주령에 시작하여 16~18주령까지 2~3주 간격으로 3~4회 접종하고 매년 추가접종을 한다.

개 렙토스피라병 (Leptospirosis) L	
정의	개에서 렙토스피라균의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불현성 전염병이며 신장, 간 및 혈관계통에 병변 형성이 특징이다.
병원체	렙토스피라 캐니콜라균과 렙토스피라 익테로헤모레지아균이다. L.canicola균은 개가 주 보균자이지만 L.icterohaemorrhagiae)균은 집쥐와 생쥐가 주 보균체이다
감수성동물	L. canicola균의 경우 자연감염은 주로 개에서 일어나고 드물게 소, 돼지, 사람에서 일어나지만 L.icterohaemorrhagiae균은 개, 쥐, 소, 돼지, 및 사람에서 감염을 유발한다.
전염방법	오줌으로 배설된 균이 구강을 통하여 또는 피부, 결막 또는 구강점막 등과의 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며 교미에 의해서도 전염할 수 있다.
잠복기	평균 약 9일 (범위 5~18일)이다.
임상증상	급성형의 경우 발열, 구토, 침울, 움직이지 않음, 호흡곤란, 황달, 출혈, 구강점막의 괴사반, 근육 전율, 혈변 및 요독증 등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약 10%이다.
진단	1) 역학적 소견 및 임상증상 등을 참고로 하여 진단한다. 2) 오줌이나 신장 조직 등으로부터 원인균을 확인하거나 분리 배양한다.
치료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PS 합제,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등을 투여한다.

예방	종합백신을 시기에 맞춰 잘 접종한다. 산책 시에 위생이 불량한 곳에 똥새를 맡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여야 함.
-----------	--

	(균)제를 투여한다.
예방	초유를 잘 먹이고, 백신(단독 또는 파보-코로나 복합)을 접종함.

개 코로나바이러스 설사병	
정의	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개의 전염병으로서 경증의 위장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설사가 특징으로 병원성은 낮아 주로 자연 회복한다.
병원체	이 병의 병원체는 개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
감수성동물	개를 비롯하여 늑대, 여우와 너구리 등 개과 동물이 감염된다.
전염방법	분변으로 배설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통한 경구 감염이 일어난다. 이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발생이 많다.
잠복기	약 4일
임상 증상	1) 단독감염 : 황록색의 똥새가 심한 수양성의 설사, 식욕결핍, 쇠약, 탈수, 구토가 나타나나 7 - 10일내에 자연회복한다. 2) 복합감염 : 파보바이러스성 장염과 복합감염 시에는 치명적임, 기타 세균과 복합 감염시에도 병세가 심해짐
진단	1) 분변의 전자현미경 검사 : 바이러스 입자 확인 2) 소장 냉동절편 이용 형광 항체 검사 3) 병리조직검사 : 소장 용모의 손상은 주로 상부에서 일어남
치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대증요법으로 수액 요법을 실시하며, 이차적인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

켄넬코프(급성 기관지염)	
정의	개에서 보데텔라균의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호흡기도의 질병으로서 지속적인 건성의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일명 “개 전염성 기관지염”이라 불린다.
발생상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체	이 병의 주 병원체는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균이지만 때로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개 디스토펜 바이러스 및 마이코플라스마균 등이 복합 감염되어 발병한다.
감수성 동물	이 병의 주 병원체는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균이지만 때로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개 디스토펜 바이러스 및 마이코플라스마균 등이 복합 감염되어 발병한다.
전염방법	접촉 및 호흡기감염으로 감염된다.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균은 상부호흡기도의 상재균이므로 환경의 악화나 면역력 저하 시에 스스로 발병할 수 있다.
잠복기	약 3~5일
임상 증상	지속적인 건성의 거친 기침이 특징이다. 기침은 통상 약 2주간 지속한다. 기침 외에 간호 장애성의 맑은 콧물을 흘리거나 결막염이 나타난다. 아주 드물게 기관지폐렴으로 진행되어 폐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진단	1) 갑자기 발병하고 외부에서 감염 견의 유입 시에 발병하게 되며 환기 불량 등 사육환경이 안 좋을 때 다발하는 등 역학적 소견 및 폐 청진소견이 정상이고 열이 없는 임상증상 등을 참고로 하여 진단한다. 2) 콧물이나 호흡기도로부터 원인균을 분리 배양한다.
치료	따뜻하고 섯바람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기침 억제제 및 항생제 등을 투여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한다.
예방	켄넬코프 예방 백신을 종합백신 3차 및 4차 접종 시에 함께 접종하여 준다 다음 매년 추가접종을 한다.

심장사상충	
정의	심장사상충증은 개의 심장 내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인 심장사상충의 감염에 의한 전염병으로서 점차 활동성이 저하되고 운동을 견디지 못하며 피를 토하는 만성 가벼운 기침과 호흡곤란, 부종 및 복수 형성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드물지만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발생상황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원체	* 원인체는 기생충의 분류상 선충강에 속하는 디이로필라리아이미티스이며 통상 심장사상충이라고 불린다. * 성충은 심장 내 (우심실 및 폐동맥)에서 약 2년간 생존한다.
감수성 동물	- 개가 주요 숙주이지만 때로 고양이가 감염되며, 이외 여우, 바다표범, 곰, 오랑우탄 및 드물게는 사람도 감염 가능.
전염방법	- 중간숙주인 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잠복기	- 최소 6~7개월 이상이다.
임상 증상	잠복기가 긴 관계로 개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2

진단	년 이상 된 성견이고 1년 이하 된 개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장의 우심실, 폐동맥 및 후대 정맥 등에 머무르면서 혈류장애 등 심장기능이상과 이에 따른 증상을 유발하는데 경 감염된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감염되면 안절부절못하고 점차 활동성이 저하되며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치고 견디지 못한다. 객혈을 수반한 만성 기침으로 시작하나 진행되면 호흡곤란이 뒤따르고 수종과 복수가 나타난다. 간혹 성충들이 대정맥을 폐쇄할 경우에는 혈색소뇨, 황달 및 허탈 등이 나타난다. 사람에서는 피부의 결절과 호흡기 증상이 주이다.
치료	심장 혈관계의 이상에 기인한 임상 증상 발현에 따른 임상적 진단과 혈액내 심장사상충 유충을 메칠렌블루오 같은 염색액으로 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 확인한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엘라이자 기법 등을 이용한 진단 키트가 개발되어 있어 보다 손쉬운 진단이 가능. 유충에 대하여는 이버멕틴(ivermectin), 레바미솔(levamisole) 또는 디싸이아제닌(dithiazanine)을 투여한다. 이 중 이버멕틴은 지속성(30일)이 있으므로 1회 투여로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12~14일간 계속 투여하여야 한다. 죽은 유충에 의한 모세혈관폐쇄 등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성충에 대하여는 싸이아세트아사마이드(thiacetarsamide) 또는 카파솔레이트를 투여한다. 성충구제제 투여 시 죽은 성충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2~6주간은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아주 심하게 감염된 경우 성충이 죽어 혈관폐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외과 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

	하여 충체를 제거하기도 한다.
예방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다. -모기 유행기 한 달 후부터 모기가 없어진 한 달 후까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1달에 한 번씩 예방적으로 투여 한다 (6-7월부터 11-12월 6개월간)

- 모기 침샘에서 3기 자충 단계로 성장하기까지는 14일간 환경 온도가 항상 14°C 이상이어야 함(온도가 낮을 경우 성장을 못 하고 사멸)

(3) 예방접종

분양 후 예방접종 방법

분양 당일	영양제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급여 후 안정이 필요
	▼
분양 후 3일	구충제 투여(알약 반 알을 손가락으로 목 깊숙이 투여)
	▼
분양 후 7일	원충제 투여(비상약 봉투에 있는 흰색 알약 반 알을 손가락으로 목 깊숙이 투여)
	▼
분양 후 15일	종합 백신(DHPPL)3차 접종 + 구충제 투여
	▼
분양 후 22일	코로나백신 접종
	▼
분양 후 35일	종합 백신(DHPPL) 4차 접종 + 원충제 투여
	▼
분양 후 42일	코로나 백신 접종
	▼
분양 후 55일	종합 백신(DHPPL) 5차 접종 + 구충제 투여

이후 구충제는 1개월에 1회씩 투여 심장 사상충 약은 3개월부터 월 1회씩 평생 복용 달력에 접종 날짜를 미리 점검해 놓으시면 제날짜에 예방접종이 쉽다.

DHPPL 이란?

DHPPL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어린 강아지들이 걸렸을 경우 매우 위험한 다섯 가지 질병이다. 종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니 분양 후 꼭 접종해야한다.

-예방접종은 강아지 몸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좋을 때 맞혀야 한다.

D : Distemper 홍역

H : Hepatitis 간염

P : Pavo virus 파보 장염

P : Para influenza 파라인플루(감기, 호흡기)

L : Leptospira 렙토스피라

(4) 종합 예방접종 방법

기간	종합 백신 (DHPPL)	광견병 백신	구충,원 충	파보장 염	켄넬코 프	코로나 장염	심장사 상충
생후25 일	-	-	구충제	-	-	-	-
생후30 일	-	-	구충제	1차	-	-	-
생후35 일	-	-	원충제	-	1차	-	-
생후40 일	-	-	-	-	-	1차	-
생후45 일	1차	-	구충제	-	-	-	-
생후50 일	2차	-	원충제	-	-	-	-
생후55 일	-	-	구충제	-	2차	2차	-
생후65 일	3차	-	구충제	-	-	-	-
생후80 일	4차	-	원충제	-	-	-	시작일
생후10 0일	5차	기초	구충제	-	-	-	매달 1회씩
추가 접종	매년	매년	매달	매년	매년	매년	매달
<p>-종합 백신(DHPPL) 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 강아지의 외출을 삼간다. -켄넬코프, 파보, 코로나 단독 백신의 경우 분양소 상황이나 질병 발생 여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가능하다. ex) 파보장염이 많은 시기에는 코로나 대신 파보백신을 투여하기도 한다.</p>							

-필요 약품들은 가축 약품, 동물약품점에서 병원비의 10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114에 전화하면 주변지역에 있는 약품가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강아지가 설사하거나 기침을 하면 백신을 맞추지 말고 분양소에 상담한다.
 -접종 전 7일간 강아지가 설사, 기침, 식욕부진 등의 반응이 있으면 백신 날짜를 늦춘다.
 -종합백신(DHPPL)은 벵가드백신을 추천하며 벵가드 제품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국산 대신 수입 백신 구입을 권장한다.
 -코로나백신은 수입백신을 권장하며 국산도 무방하다.

TIP! 약품구입